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 진단 및 전략적 제고 방안

연구책임

정은천 연구위원

J THINK



이슈브리핑 요약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절차 및 유치경쟁 구도 변화

-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절차는 기존의 이분화된 협의 구조에 전환단계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보 증 조기 입증과 대규모 이벤트 개최 경험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유치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음
- 인도는 14억 명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을 앞세워 IO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활동을 전 개하고 있으나, 거버넌스의 불투명성, 만연한 도핑, 올림픽에서의 저조한 성적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음
- 카타르는 우수한 스포츠시설 인프라와 검증된 이벤트 개최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7~8월의 높은 기온, 이주민 비율, 인권 문제 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독일은 4개 도시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독일 국민의 72%가 하계올림픽을 지지하는 대중적 지지기 반을 형성하여, 향후 국내 유치후보도시가 선정될 경우 강력한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주요 경쟁국별 올림픽 유치경쟁력지수

- 주요 경쟁국별 IOC 전략평가 기반의 유치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대한민국의 유치경쟁력지수는 63.9로 독 일,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IOC 내부 영향력, 재정기여도, 국제스포츠이벤트 경쟁력을 반영한 전환단계 도입 기반 유치경쟁력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한민국이 82.0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도, 카타르 등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음
-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경쟁력지수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경우 전환단계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실패 원인

-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유치위원회 구성없이 비상설 협의체인 범 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추진체계가 분산되면서 일관된 유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치위원회의 조기 구성과 전환단계 도입에 따른 정부의 조기 승인 필요성이 도출되었음

우선협상도시 선정 가능성 제고 전략

- 첫째, 올림픽의 환경가치가 진화해 온 흐름을 고려할 때, 넷제로를 넘어서는 넷플러스(Net+)를 핵심 가치 로 설정한 ‘넷플러스 올림픽’으로의 브랜딩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함
- 둘째, 도시 장기발전계획과 올림픽 유치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장기발전계획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셋째, 다지역으로 분산된 도시와 시설을 디지털,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올림픽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회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 데이터와 AI 기반 플랫폼에 통합·관리되는 ‘플랫폼형 올림픽’을 제안함

I.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방안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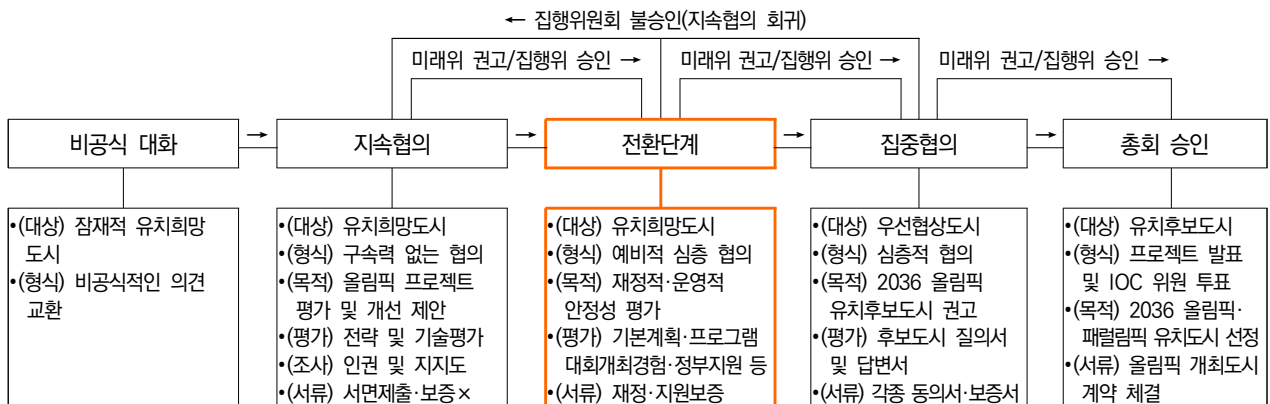
이분법적 협의 구조(지속협의-집중협의)에 새로운 전환단계 도입

- **(이분법적 협의구조)** 현재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절차는 탐색적인 대화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속협의’,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도시와 특정 연도의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목표로 진행되는 ‘집중협의’로 진행됨
 - (초대방식) 2014년 발표된 「올림픽 어젠다 2020」 혁신안에 의해 2019년부터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초대·대화 방식으로 전환 및 간소화하였으며, 이 방식에 따라 선정된 최초의 올림픽은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임
 - (유치희망도시 증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간소화된 선정 절차의 이행으로 평균 3천5백만 달러였던 유치활동 비용이 약 5백만 달러로 85.7%가 감소하여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증가하였다고 강조함
- **(선정방식 재검토)** 커스티 코번트리(짐바브웨) IOC 신임위원장은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과정에 IOC 위원 참여 확대와 최적의 선정 및 개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선정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선정방식 재검토를 지시하였음
 - (불투명성 해소) 의사결정 권한이 미래유치위원회(FHC)와 집행위원회에 이양된 현재의 선정방식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에 IOC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임
 - (불확실성 완화)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은 11년 전,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은 6년 전에 선정되어, 선정 시기의 예측 불가능성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개최도시 선정 시기 및 방식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환단계 도입)**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전 크로아티아 대통령)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제145차 IOC 총회를 앞두고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환단계 도입을 제안하였음(May, 2026)
 - (신뢰성·공정성 강화) 체계적인 개최도시 선정 일정, 높은 투명성과 IOC 위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선정절차의 문서화, IOC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기적 정보제공 추진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임
 - (심층적 평가단계 도입) 지속협회가 상당히 진행되어 올림픽 개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일부 유치희망도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환단계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적·운영적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IOC의 의지를 반영한 신규 절차임

전환단계를 반영한 유치도시 선정 예측모형 및 핵심 평가요소

- **(선정 예측모형)** 기존 지속협의와 집중협의 사이에 전환단계가 추가됨에 따라 선정모형은 더 복잡해진 반면, 지속 및 집중 협의 기간이 단축되며, 유치희망도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단계의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임

〈전환단계 반영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예측모형〉



- **(전환단계 심층 평가요소)** IOC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전환단계에 경기장 기본계획 완성도, 스포츠 프로그램 명확성, 재정보증,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경험상의 경쟁우위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전환단계 핵심 평가요소〉

평가 요소	주요 평가 기준
장소 기본계획의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시설·올림픽촌·숙박시설·미디어센터 등의 배치·운영·투자계획의 구체성 장소 기본계획과 국가·지역·도시 장기개발계획 간의 전략적 연계성
스포츠 프로그램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목 및 세부 경기 프로그램의 명확성 선수·올림픽촌·관중 및 팬 경험 제공 및 지역사회 소통 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정부 재정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운영예산의 재정 의무 이행 보증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 희망 국가·지역·도시의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경력상의 경쟁우위

출처 : IOC (2021a) 「Feasibility assessment: Olympic Games Brisbane」; IOC (2021b) 「Report of the Future Host Commission for the Games of the Olympiad to the IOC Executive Board: Targeted dialogue Brisbane 2032」; IOC (2021c) 「Future host questionnaire」

- **(재정·운영적 안정성)** 전환단계 도입에 따라 강력한 시설 인프라, 정부의 재정보증 및 확고한 지원 의지를 이전 절차보다 더 빠른 시기에 입증해야 하며, 국제종합스포츠이벤트 개최 경험이 많은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재정보증 지연 발생)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은 2024년 7월 IOC 총회에서 잠정 승인되었으나, 이행보증이 제출되지 않아 2025년 2월 프랑스 정부에서 재정보증 승인 후 올림픽 개최도시 계약이 체결되어 정부의 재정보증 제출이 조기 시행될 예정임
 - (안정성 확보)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절차에 전환단계의 도입은 올림픽의 재정적, 운영적 실현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가진 국가·도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임
- **(유치 가능성 진단 및 전략과제 도출)** 이처럼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유치절차가 조기화되고 있기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임

II. 주요 경쟁국 동향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경쟁 도시

- **(사상 최대 유치경쟁)**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4개 대륙에서 10여 개가 넘는 국가·도시가 IOC와 지속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후보도시의 지역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으로 역대 가장 치열한 유치경쟁임

〈2036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경쟁 국가/도시〉

대륙	국가(도시)
아시아(5)	대한민국(전북 전주), 인도(아메다바드), 카타르(도하),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인도네시아(누산타라)
유럽(4)	튀르키예(이스탄불), 헝가리(부다페스트), 독일(후보도시 선정 중), 스페인(바르셀로나 또는 마드리드)
미주(1)	칠레(산티아고)
아프리카(2)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 이집트(신행정수도)

주 : 표 안의 국가 이외에도 홍콩(광둥성, 마카오와 분산개최), 이탈리아(로마 또는 제노바, 밀라노, 토리노 등 다도시 모델), 영국(런던 또는 북부지역), 덴마크(코펜하겐) 등도 2036년 또는 2040년 올림픽 유치 의향을 나타내어 유치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대륙간 순환개최 관행)** IOC의 대륙간 순환개최 관행을 고려할 때, 2036년 올림픽 개최국으로 아시아 국가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유럽 국가들은 단기 경쟁을 넘어 2040년 및 2044년 올림픽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순환개최 도입) 1960년 올림픽 유치신청을 1국가 1도시로 제한함에 따라 국가 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륙간 순환개최가 개최 선정에 고려되기 시작했으며, 1984년 LA 올림픽부터 개최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009)
 - (순환개최 주기) 대체로 유럽과 미주가 8~12년 주기, 아시아는 1988 서울올림픽 24년 소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년 소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12년이 소요되어 개최 주기가 단축되고 있음

〈대륙간 순환개최 주기〉

대륙	순환개최 소요 기간
유럽	1960 로마→1972 뮌헨(12년)→1980 모스크바(8년)→1992 바르셀로나(12년)→2004 아테네(12년), 2012 런던(8년)→2024 파리(12년)
미주	1968 멕시코시티, 1976 몬트리올(8년), 1984 LA(8년), 1996 애틀랜타(12년), 2016 브라질(20년)→2028년 LA(12년)
아시아	1964 도쿄→1988 서울(24년)→2008 베이징(20년)→2020 도쿄(12년)
오세아니아	1956 멜버른→2000 시드니(44년)→2032 브리즈번(32년)

인도 아마다바드

- **(지역 분산형 올림픽)**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스포츠 엔클레이브’를 중심으로 구자라트주 최대 도시인 아마다바드와 수도인 간디나가르에서 80%의 종목을 개최하고, 나머지 20%의 종목은 4개 주에 분산 배치할 계획임
 - (전국 분산 개최) 크리켓과 축구는 뭄바이, 조정, 카누 스프린트는 푸네, 서핑과 요트는 고아, 카누 슬라럼은 보팔, 사이클 및 MTB는 우타라칸드에서 열릴 예정임(McGowan, 2025)

〈아마다바드에 조성될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스포츠 엔클레이브 조감도〉



출처 : Populous

- **(핵심 인물)** 인구 14억 명이란 매력적인 시장을 앞세운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주도로 국가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릴라이언스 재단 이사장이자 IOC 위원인 니타 암바니를 통해 IOC 내부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음
 - (니타 암바니) 아시아 최대 부호인 릴라이언스 인터스트리 이사장의 부인으로 2036 올림픽 유치의 강력한 정치적·재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서, IOC는 올림픽의 TOP 후원사로 릴라이언스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였음(Livingstone, 2024)
- **(징검다리 이벤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의 핵심 이정표로서 2030년 영연방대회 유치에 성공, 이를 통해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세계 스포츠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자 함

- (단계별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추진) 구자라트주는 2036년 올림픽 유치의 일환으로 2028년 U20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3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33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38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리스크)** 2025년 7월 인도 대표단이 IOC 본부를 방문한 결과, IOC는 인도올림픽위원회(IOA) 거버넌스의 불투명성, 인도 선수들의 만연한 도핑, 올림픽에서의 저조한 성적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음(Vasavda, 2025)
 - (도핑 양성 건수 주요국 1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2023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주요 국가들 가운데 금지약물 양성 반응률이 가장 높고, 2024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성년 선수의 도핑 양성 건수가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하였음
 - (거버넌스 문제) IOC가 크리켓을 2028년 LA 올림픽에 한시적 정식종목으로 추가한 것은 방송중계권 수익 확대를 위해 인도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이었으나, IOC는 2025년 인도의 부실한 거버넌스를 문제 삼아 연대기금을 중단한 바 있음
 - (경쟁력 하락)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며 유력후보로 평가받아 온 인도는 IOC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중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형성되었던 경쟁우위와 전략적 입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Livingstone, 2025)

카타르 도하

- **(유치 본격화)** 주요 국제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동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는 올림픽 경기시설의 95%를 확보하고 있는 인프라 경쟁력, 검증된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역량 및 축적된 국제스포츠 외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25년 7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 대표성 강화) 카타르 국영방송사 beIN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2028년 LA 하계올림픽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계권을 확보함으로써, 카타르의 스포츠 생태계와 올림픽 운동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와 지속협의 중인 카타르의 위상을 제고시켰음

〈카타르 주요 경기시설〉



칼리파 스타디움

알라이안 경기장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

두하일 스포츠 센터

- **(핵심 인물)** 세이크 조안 빈 하마드 알 타니(40) 카타르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의장,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수석부회장으로서 국제 스포츠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올림픽 유치위원회 총괄) IOC 올림피즘 365 위원으로 IOC 위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카타르 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전반적인 유치 과정을 총괄 지휘하고 있음
- **(징검다리 이벤트)** 카타르는 2016년, 2020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2015년 세계 핸드볼선수권대회, 2019년 월드비치게임, 201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22년 FIFA 월드컵, 2024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확대) 2027년 세계 남자농구월드컵, 2029년 세계 남자배구선수권대회, 2030년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를 연달아 유치하며, 글로벌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리스크)** 카타르의 7월 평균 최고 기온이 섭씨 44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7~8월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구 311만 명 중 이주민 비율이 88%에 달하여 대중적 지지의 타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카타르 내 인권 문제는 IOC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Harding, 2025)
 - (노동권 논란) 영국 가디언지는 2022년 FIFA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음

독일

- **(4개 도시 유치경쟁)** 독일은 2036년, 2040년 또는 204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이며,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쾰른-라인-루르 등 주요 도시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 (다크호스 부상) 독일올림픽체육연맹(DOSB)은 2026년 가을 국내 유치후보도시를 선정할 예정으로, 2년간의 경쟁 과정에서 정립된 유치 전략 강화로 인해 후보도시 선정 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의 유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국민 지지도) 독일 국민의 72%가 하계올림픽을 지지하며 강력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형성한 가운데, 뮌헨이 3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쾰른-라인-루르(24%), 베를린(15%), 함부르크(11%) 순으로 나타남(Connor, 2025)

〈독일 국내 경쟁도시〉



뮌헨(단일도시 집중형) 쾰른-라인-루르(다도시 분산형) 베를린(다지역 분산형) 함부르크(단일도시 집중형)

- **(지역별 특화 올림픽 모델)** 뮌헨은 레거시 중심 모델, 쾰른-라인-루르는 비용 최적화 모델, 베를린은 지역 협력 모델, 함부르크는 재정 효율화 모델로 특화하여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뮌헨) 1972년 뮌헨 올림픽 유산을 기반으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체 경기장의 90%를 올림픽촌 반경 30km 내에 배치하고, 요트, 카누, MTB, 축구 등 일부 종목만 원거리에 분산하는 ‘원 빌리지(one-village)’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 하에서 뮌헨 시민의 66.4%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였음(AP News, 2025)
 - (쾰른-라인-루르)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의 95%를 기존 시설(90%)과 임시시설(5%)로 활용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17개 도시로 분산 배치하는 메가 클러스터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민의 66.0%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찬성하였음(Schulte, 2026)
 - (베를린) 올림픽 개최 비용 약 50억 유로를 올림픽 수익으로 충당하고,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작센 등 4개 파트너 주에 경기장을 분산 배치하는 ‘베를린+’ 전략을 추진 중이나, 민간기관에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주민의 67%가 올림픽 유치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임(South China Morning Post, 2025)
 - (함부르크) 올림픽 개최 비용으로 약 48억 유로를 산정하고 스폰서십(32%), 티켓판매(30%), IOC 기여금(25%), 기타(13%)로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 효율화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신축 경기장 없이 기존 시설(76%)과 임시시설(24%)만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호수 개막식 개최 등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2026년 5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음

III. 올림픽 유치 가능성 진단

전략적 요소 평가

- **(지속협의 평가 요소)** IOC 미래유치위원회는 지속협의 단계에서 비전, 정치환경, 인적 개발, 지속가능성, 경제 여건 등을 포함한 전략적 요소를 평가하고, 장소 기본계획, 전략적 연계성, 정부 지원, 자원조달 전략, 대회 운영 계획 등의 기술적 검토를 시행한 후, 올림픽 유치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IOC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지속협의 단계 평가 요소〉

부문	평가 요소	
전략평가	비전, 정치환경, 인적 개발 및 지속가능성 여건, 경제환경	
기술평가	장소 기본계획 및 전략적 연계	장소 기본계획 평가 장기개발계획과의 전략적 연계성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및 유산 효과
	정부지원 및 자원조달 전략	정치적 지원 공공부문 지원 자원 조달 전략 : 자원 조달 원천
	대회 운영	스포츠/이벤트 관련 전문지식 기상 데이터 항공을 포함한 수송 기반 시설 숙박시설 수용인원 안전 및 보안

출처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2021a) 「Feasibility assessment: Olympic Games Brisbane」

- (경쟁국별 전략평가 점수) IOC와 지속협의를 진행 중인 주요 경쟁국을 대상으로 미래유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조하는 외부기관 지표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인간개발(HD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법치주의, 빈곤율, 환경성과(EPI), GDP 등 다수의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인적 개발 지표) 인간개발(HDI), 법치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 4.2달러 기준 빈곤율은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독일,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반면, 성격차 지표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중위권에 위치함
 - (환경 및 경제지표) 무디스 신용등급은 독일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환경성과(EPI)는 독일,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 GDP는 독일, 인도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인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과 GDP 성장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하위권에 위치함

〈2036 하계올림픽 경쟁국별 전략평가 지표 현황〉

구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자료 출처
		대한민국	인도	카타르	사우디	인도네시아	독일	헝가리	튀르키예	이집트	남아프리카	칠레	
인적 개발 지표	인간개발(HDI)	0.937 (20위)	0.685 (130위)	0.886 (43위)	0.900 (37위)	0.728 (113위)	0.959 (5위)	0.870 (46위)	0.853 (51위)	0.754 (100위)	0.741 (106위)	0.878 (45위)	UNDP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78.12 (34위)	66.95 (99위)	65.09 (107위)	65.19 (105위)	70.22 (77위)	83.67 (4위)	80.37 (21위)	70.61 (73위)	68.09 (91위)	64.11 (111위)	78.05 (35위)	SDR
	국제인권조약 기준	13	8	9	8	10	17	14	16	10	15	17	UNHR
	ILO 핵심협약 기준	9	6	5	7	9	9	9	10	8	9	10	ILO
	법치주의	0.74 (19위)	0.49 (86위)	0.62 (41위)	-	0.52 (69위)	0.83 (6위)	0.50 (79위)	0.41 (118위)	0.35 (135위)	0.56 (60위)	0.66 (35위)	WJP
	성격차(GGI)	0.687 (101위)	0.644 (131위)	0.640 (130위)	0.643 (132위)	0.692 (97위)	0.803 (9위)	0.684 (105위)	0.633 (135위)	0.625 (139위)	0.767 (33위)	0.777 (22위)	WEF
	4.2달러 빈곤율(%)	0.1	24	0	-	16	1	2	0	7	30	1	WB
환경지표	환경성과(%)	50.6 (58위)	27.6 (176위)	46.8 (82위)	42.5 (108위)	33.6 (163위)	74.5 (3위)	59.8 (31위)	37.2 (143위)	43.7 (101위)	42.7 (106위)	49.6 (64위)	Yale Uni.
	재생에너지 비율(%)	4.14	18.47	0.27	0.15	14.00	19.56	16.41	13.81	3.35	5.64	24.70	IEA
경제지표	무디스 신용등급	Aa2	Baa3	Aa2	Aa3	Baa2	Aaa	Baa2	Ba3	Caa1	Ba2	A2	Moody's
	GDP(십억달러)	1,875.4	3,909.9	219.2	1,239.8	1,396.3	4,685.6	222.7	1,359.1	389.1	401.2	330.3	WB
	GDP 성장률(%)	2.0	6.5	2.4	2.0	5.0	-0.5	0.6	3.3	2.4	0.5	2.6	WB

자료 : IOC (2021b) 「Report of the Future Host Commission for the Games of the Olympiad to the IOC Executive Board: Targeted dialogue Brisbane 203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5; United Nations Human Rights(OHCH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World Justice Project(WJP); World Economic Forum(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5」; World Bank; Yale Univers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24」;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Moody's

- **(전략 평가지수 체계화)** IOC는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정치 및 제도적 안정성, 실행 가능성 등을 핵심 평가요소로 중시함에 따라 기존 지표체계를 4대 축으로 재구성하고, 핵심 지표 반영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한 후, 대륙별 순환개최 관행을 고려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가점 5점을 부여하였음

〈4대 축 기반 지표 재구성〉

지수	지표	가중치	가점
사회적 포용성	인간개발(HDI), 성격차(GGI), 빈곤율	20%	(대륙별순환개최) 아시아,아프리카 +5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환경성과(EPI), 재생에너지 비율	30%	
거버넌스 신뢰성	국제인권조약 비준, ILO 핵심 협약 비준, 법치주의	20%	
재정적 안전성	무디스 신용등급, 국내총생산(GDP), GDP 성장률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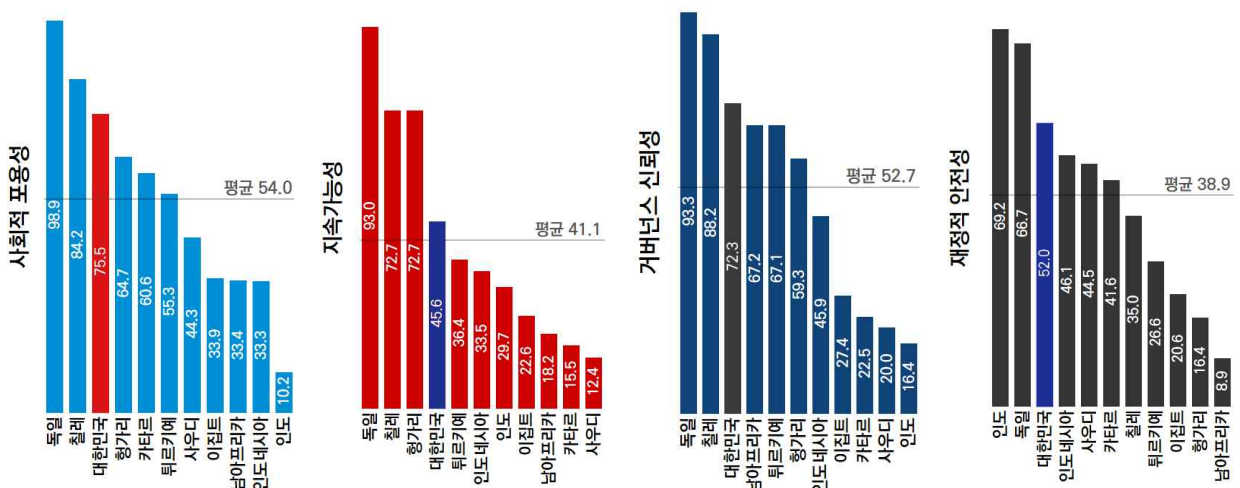
- **(유치경쟁력지수 산출)** 각 지표를 최소-최대 정규화 방식을 통해 정규화한 후 지수별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에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합과 대륙별 순환개최 가점을 반영하여 유치경쟁력지수(BCI)를 산출하였음
 - (최소-최대 정규화) 이 방식은 여러 지표를 상대적 기준에서 간편하게 정규화할 수 있고, 음수값이 발생하지 않아 해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기에, 집단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지수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정해식 외, 2016)

〈전략평가 기반 주요 경쟁국 지수별 현황 및 유치경쟁력지수〉

지수	대한민국	인도	카타르	사우디	인도네시아	독일	헝가리	튀르키예	이집트	남아프리카	칠레	평균
사회적 포용성	75.5	10.2	60.6	44.3	33.3	98.9	64.7	55.3	33.9	33.4	84.2	54.0
지속가능성	45.6	29.7	15.5	12.4	33.5	93.0	72.7	36.4	22.6	18.2	72.7	41.1
거버넌스 신뢰성	72.3	16.4	22.5	20.0	45.9	93.3	59.3	67.1	27.4	67.2	88.2	52.7
재정적 안전성	52.0	69.2	41.6	44.5	46.1	66.7	16.4	26.6	20.6	8.9	35.0	38.9
평균	61.4	31.4	35.0	30.3	39.7	88.0	53.3	46.4	26.1	31.9	70.0	46.7
가중합	58.9	35.0	33.7	29.9	39.7	86.4	51.5	43.4	25.2	28.2	66.8	45.3
가점	5	5	5	5	5	-	-	-	5	5	-	
유치경쟁력	63.9	40.0	38.7	34.9	44.7	86.4	51.5	43.4	30.2	33.2	66.8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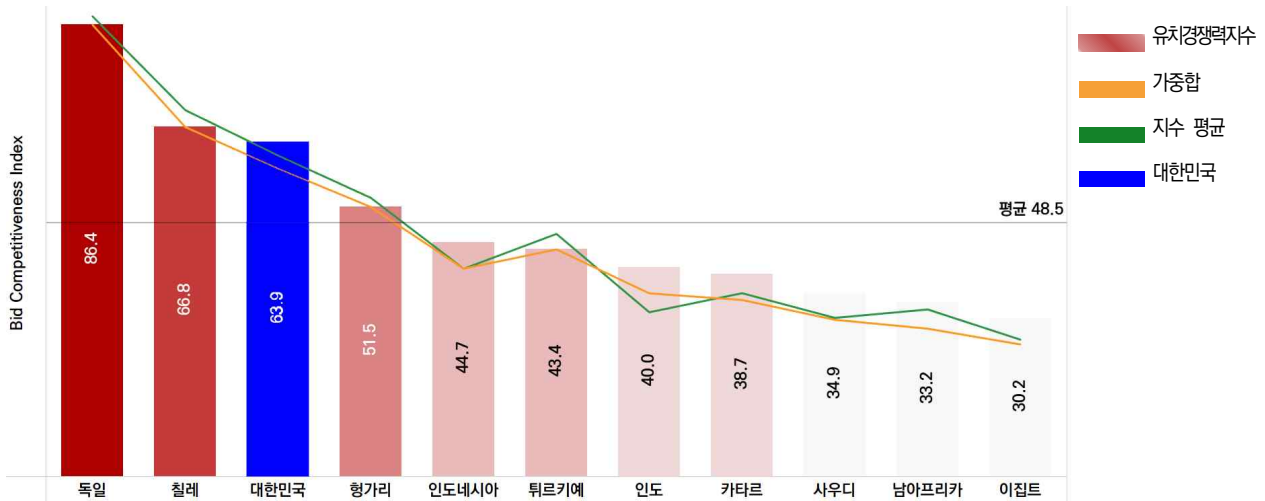
- **(부문별 유치경쟁력지수)** 지수별 유치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포용성, 거버넌스 신뢰성, 재정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 단계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비교적 낮은 영향으로 네 번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경쟁국 부문별 유치경쟁력지수〉



- **(전략평가 기반 유치경쟁력지수)** 전략평가 기반 대한민국 유치경쟁력지수는 63.9로 독일,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가중치 합 기준 58.9, 지수의 산출평균에서도 61.4로 대한민국의 상대적 순위 역시 동일하게 세 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략평가 기반 주요 경쟁국별 유치경쟁력지수〉



주 1: 가중합은 지수별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값, 유치경쟁력지수는 가중합에 가점 5점을 더한 지수, 지수 평균은 4개 지수값의 산술평균
 주 2: 순기능 지표 정규화= $\frac{(x - x_{\min})}{(x_{\max} - x_{\min})} \times 100$, 역기능 지표 정규화= $\frac{(x_{\max} - x)}{(x_{\max} - x_{\min})} \times 100$
 주 3: 유치경쟁력지수= $SocialInclusion \times 0.2 + Sustainability \times 0.3 + GovernanceCredibility \times 0.2 + FinancialStability \times 0.3 + 5(Asia \text{ or } Africa)$

IOC 내부 영향력

- **(내부 영향력 확보의 중요성)** IOC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유치 전략의 핵심 요소이기에, 우선협상도시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행위원, 최종 후보지 선정 투표권을 보유한 위원, 투표권은 없으나 현직 위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예위원의 역할이 중요함
 - (IOC 고위 인사의 영향력) 브리즈번이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IOC 부위원장이었던 존 코츠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존 코츠는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방식을 기존의 경쟁입찰에서 초대(대화) 방식으로 전환시킨 핵심 설계자임
- **(정책 결정 및 대표성 확보)**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간 중 김재열 IOC 위원이 집행위원으로, 원윤종이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어 정책 결정권과 선수 대표성을 동시 확보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집행위원 1명, 위원 1명, 명예위원 1명으로 구성된 위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IOC 내부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

〈주요 경쟁국별 IOC 위원〉

대륙	국가	집행위원	위원	명예위원
아시아	대한민국	김재열(2023)	원윤종(2026)	반기문(2025)
	인도		니타 암바니(2016)	라자 란디르 싱(2001)
	카타르		타미 빈 하마드 알타니(2002)	
	사우디아라비아		리마 반다르 알사우드(2020)	나와프 빈 파이살(2002)
	인도네시아		에릭 토히르(2019)	
유럽	독일		미카엘 뮌츠(2023), 김 부이(2024)	토마스 바흐(1991, 명예위원장)
	헝가리		발라주 푸리에시(2023)	팔 슈미트(1983)
	튀르키예			우르 에르데네르(2008)
아프리카	이집트		아야 메다니(2024)	
	남아프리카		아난트 싱(2016)	샘 램사미(1995)
남미	칠레	네벤 일릭(2017)		

주 : 괄호() 안은 IOC 위원 선출 연도
 출처 :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olympics.com/ioc/members>)

IOC 재정기여도

- **(IOC 재정 압박)** 현재 IOC TOP(The Olympic Partne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수는 2024년 대비 3개 기업이 순감한 12개로, IOC는 TOP 프로그램 이탈에 따른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재정기여도 측면 경쟁우위 확보)** 2036년 하계올림픽 주요 유치 경쟁국 중 TO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독일 알리안츠 두 곳으로, IOC에 대한 재정기여도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해당 계약이 2028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계약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동력 추가 확보 필요성) 5G, VR, AI, 드론 분야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인텔의 이탈로 해당 분야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 IT 대기업이 TOP 프로그램에 추가로 진출할 경우, 상당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2~2032년 IOC 최상위 후원 프로그램 TOP 자격 보유 기업〉

No.	본사소재지	기업	로고	독점 분야	최초계약	'12	'16	'20	'24	'28	'32
1	벨기에	AB 인베브		무알코올·알코올 맥주	2024				■	■	■
2	대만	에이서		컴퓨터 장비	2009	■					
3	미국	에어비엔비		숙박 상품 및 경험 서비스	2019			■	■	■	■
4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2017			■	■	■	■
5	독일	알리안츠		보험	2021				■	■	■
6	프랑스	아토스		정보기술 제품·서비스 및 솔루션	2001	■	■	■	■	■	■
7	일본	브리지스톤		타이어, 자동차 서비스, 무동력 자전거	2014		■	■	■	■	■
8	미국	코카콜라		무알코올 음료, 유제품	1986	■	■	■	■	■	■
9	미국	다우케미칼		화학제품, 원자재, 화합물	2010	■	■	■	■	■	■
10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에너지, 헬스케어, 수송 시스템 관련 장비	2005	■	■	■	■	■	■
11	미국	맥도널드		소매 식품 운영	1985	■	■	■	■	■	■
12	영국/미국	딜로이트		경영 및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2022				■	■	■
13	미국	JP모건 체이스	JPMorganChase	자산관리, PB, 상업 및 투자은행	2026					■	■
14	미국	인텔		5G, VR, 인공지능(AI) 플랫폼, 드론	2017			■	■	■	■
15	스위스	오메가		계측, 기록, 경기결과 시스템 및 서비스	2003	■	■	■	■	■	■
16	일본	파나소닉		오디오·TV·비디오 장비, 가전제품	1987	■	■	■	■	■	■
17	미국	피앤지		헬스케어 및 생활용품	2010	■	■	■	■	■	■
18	대한민국	삼성전자		무선통신 및 컴퓨터 장비	1997	■	■	■	■	■	■
19	일본	도요타		자동차, 모빌리티 지원 로봇 및 서비스	2017			■	■	■	■
20	중국	TCL (파나소닉 대체)		가정용 시청각 장비, 가전제품	2025					■	■
21	미국	비자		결제서비스, 거래 보안, 선불카드	1986	■	■	■	■	■	■

출처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각 연도) 「IOC Marketing Report」

- **(IOC 수익 구조)** 2021~2024년 기준 IOC의 수익 구조는 중계권 55%, TOP 프로그램 36%, 기타 9%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TOP 프로그램 수익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34.8%로 중계권 대비 16.8%p 높음
- **(TOP 스폰서 이탈)** 2024년을 만기로 TOP 프로그램 계약을 종료한 기업은 토요타(일본), 파나소닉(일본), 브리지스톤(일본), 아토스(프랑스), 인텔(미국) 5개 기업이며, 중국 기업 TCL이 2025년, 미국 기업 JP모건 체이스가 2026년에 신규 참여하였음
 - (수익 감소) 토요타는 4번의 올림픽 주기 동안 8억 3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Kageyama, 2024), 2021~2024년 TOP 프로그램 수익 기준 기업당 평균 약 2억 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6억 달러 규모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

〈8개 올림픽 중계권 및 TOP 프로그램 수익〉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93~'96	'97~'00	'01~'04	'05~'08	'09~'12	'13~'16	'17~'20	'21~'24	연평균 증가율
중계권	1,251	1,845	2,232	2,567	3,850	4,161	4,544	4,706	18.0%
TOP 프로그램	279	579	663	866	950	1,003	2,295	3,040	34.8%
계	1,530	2,424	2,895	3,433	4,800	5,164	6,839	7,746	22.5%

출처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2025) 「Olympic Marketing Fact File」

- **(조직위원회 수익 구조)** 한편, 올림픽 개최도시 조직위원회(OCOG)의 수익 구조를 보면, 1993~1996년 약 11억 달러에서 2021~2024년 약 47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수입 항목 중 국내 스폰서십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25%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조직위원회 재정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8개 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익 구조〉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93~'96	'97~'00	'01~'04	'05~'08	'09~'12	'13~'16	'17~'20	'21~'24	연평균 증가율
국내 스폰서십	534	655	796	1,555	1,838	2,037	3,732	3,177	25.0%
입장권 수입	451	625	411	274	1,238	527	146	1,304	14.2%
국내 라이선싱	115	66	87	185	170	74	131	242	9.7%
계	1,100	1,346	1,294	2,014	3,246	2,638	4,009	4,723	20.0%

출처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2025) 「Olympic Marketing Fact File」

- **(지원금 증가)** IOC의 상업수익과 올림픽 개최도시 조직위원회의 자체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림픽 조직위원회 지원금은 물론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세계안티도핑기구(WADA)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어, TOP 스폰서 추가 유치와 IOC 상업모델의 재정비가 요구됨
 - (재정 규모 감소)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2025~2028년 LA 올림픽까지 약 73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승계하였으나, 이는 전임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 재임기간(2021~2024년)의 77억 달러에 비해 감소한 수준임
 - (직원 증가) 로잔 올림픽하우스 직원수는 2012년 355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6개 올림픽 지원금 구조〉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2016 리오	2020 도쿄	2024 파리	연평균 증가율
올림픽 지원금	965	1,250	1,374	1,531	1,892	1,991	12.8%
NOCs 지원금	234	301	520	540	540	590	16.7%
IFs 지원금	257	297	520	540	540	590	14.9%
계	1,456	1,848	2,414	2,611	2,972	3,171	13.9%

출처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2025) 「Olympic Marketing Fact File」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경쟁력

- **(스포츠이벤트 경쟁력 분야 경쟁우위 확보)**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국가로서, 아시안게임 3회, FISU 하계·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운영 역량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할 수 있음
- **(독일 스포츠이벤트 경쟁력)** 독일은 하계올림픽 2회와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을 개최한 데 이어 최근 라인-루르 지역에서 FISU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경쟁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징검다리 이벤트 전략 확산)** 인도는 2030년 영연방대회, 카타르는 2030년 아시안게임, 사우디아라비아는 2034년 FIFA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이집트는 2027년 아프리카 게임 등의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2036년 하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징검다리 이벤트' 개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주요 경쟁국별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현황〉

대륙	국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대륙별 대회	대륙간 대회	하계U대회	동계U대회
아시아	대한민국	1988	2018	2002	1986,2002,2014		2003,2015,2027	1997
	인도				1951,1982	2010,2030		
	카타르			2022	2006,2030			
	사우디아라비아			2034	2034			
	인도네시아				1962,2018			
유럽	독일	1936,1972	1936	2006			2025	
	헝가리						1965	
	튀르키예				2027		2005	2011
아프리카	이집트				1991,2027			
	남아프리카			2010	1999			
남미	칠레			1962	2023			

전환단계 기반 유치경쟁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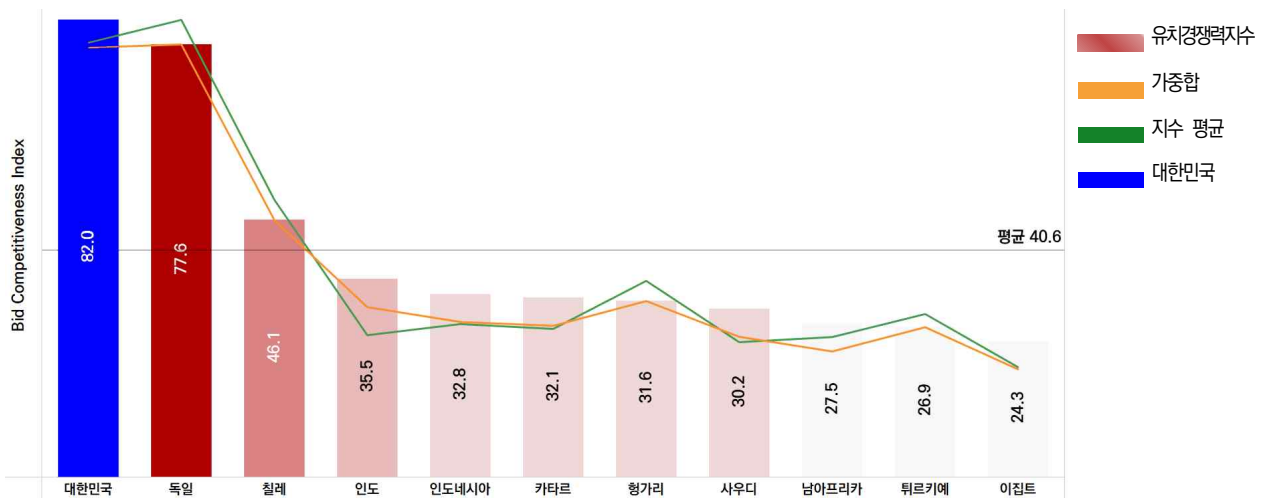
- **(주요 변수 정량 지수화)** 전략평가 기반 유치경쟁력지수에 더하여, 앞서 분석한 IOC 내부 영향력, IOC 재정기여도, 국제스포츠이벤트 경쟁력을 정량화하기 위해 IOC 위원 등급별 보유 현황, TOP 프로그램 참여 여부,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실적 등을 기준으로 등급화하고, 이에 따른 점수 체계를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하였음
- **(지수 체계화)** 각 지수는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 IOC의 핵심 평가 요소와 전환단계 도입에 따른 재정적·운영적 안정성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대륙별 순환개최 관행을 고려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전환단계 도입 기반 유치경쟁력지수를 산출하였음

〈내부영향력·재정기여도·이벤트경쟁력 지수〉

지수	지표
IOC 내부 영향력	집행위원(10), 위원(5), 명예위원(2)
IOC 재정기여도	TOP 프로그램 참여(10)
스포츠이벤트 경쟁력	하계올림픽(10), 동계올림픽(9), FIFA(8.5), 대륙대회(7.5), 대륙간대회(6.5), FISU 하계(5.5), FISU 동계(5)

- (전환단계 기반 유치경쟁력지수)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이 40.6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82.0으로 주요 경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독일 77.6, 칠레 46.1, 인도 3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높은 경쟁우위 확보) 대륙별 순환개최 관행에 따른 5점 가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독일과 유사한 수준의 지수를 보였으며, 7개 지수의 산술평균은 독일 다음으로 두 번째,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인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주요 경쟁국별 전환단계 기반 유치경쟁력지수〉



주 1: 가중합은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값, 유치경쟁력지수는 가중합에 가점 5점을 더한 지수, 지수 평균은 7개 지수값의 산술평균

주 2: 순기능 지표 정규화= $(x - x_{\min}) / (x_{\max} - x_{\min})$, 역기능 지표 정규화= $\{(x_{\max} - x) / (x_{\max} - x_{\min})\} \times 100$

주 3: 유치경쟁력지수= $Social\ Inclusion \times 0.1 + Sustainability \times 0.15 + Governance\ Credibility \times 0.1 + Financial\ Stability \times 0.2 + Internal\ Influence \times 0.15 + Financial\ Contribution \times 0.1 + Event\ Competitiveness \times 0.2 + 5(Asia\ or\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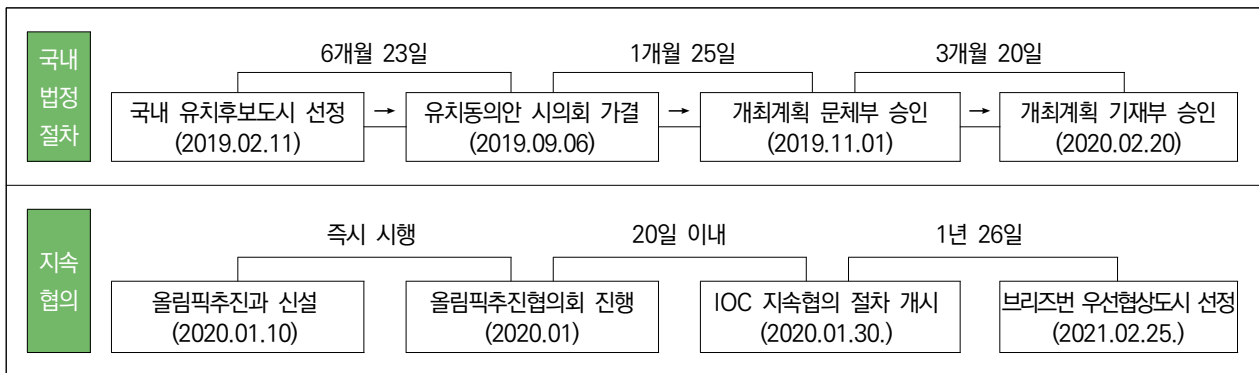
지수	대한민국	인도	카타르	사우디	인도네시아	독일	헝가리	튀르키예	이집트	남아프리카	칠레	가중치
사회적 포용성	75.5	10.2	60.6	44.3	33.3	98.9	64.7	55.3	33.9	33.4	84.2	10%
지속가능성	45.6	29.7	15.5	12.4	33.5	93.0	72.7	36.4	22.6	18.2	72.7	15%
거버넌스 신뢰성	72.3	16.4	22.5	20.0	45.9	93.3	59.3	67.1	27.4	67.2	88.2	10%
재정적 안전성	52.0	69.2	41.6	44.5	46.1	66.7	16.4	26.6	20.6	8.9	35.0	20%
IOC 내부 영향력	100.0	20.0	20.0	33.3	20.0	66.7	33.3	0.0	20.0	33.3	53.3	15%
IOC 재정 기여도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
스포츠이벤트 경쟁력	100.0	32.6	25.9	14.8	13.3	55.6	0.0	19.3	13.3	14.8	14.8	20%
평균	77.9	25.4	26.6	24.2	27.4	82.0	35.2	29.2	19.7	25.1	49.8	
가중합	77.0	30.5	27.1	25.2	27.8	77.6	31.6	26.9	19.3	22.5	46.1	
가점	5	5	5	5	5	-	-	-	5	5	-	
유치경쟁력	82.0	35.5	32.1	30.2	32.8	77.6	31.6	26.9	24.3	27.5	46.1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실패 교훈

- (남북 공동유치 추진) 서울시는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IOC 위원장 및 남북 체육장관 3자 회의, 국내 법정절차 이행 및 IOC와 지속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브리즈번이 우선협상도시로 선정되었음
 - (국내 법정절차 이행) 2019년 2월 1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34 대 11로 부산을 제치고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후 보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서울-평양 공동유치 추진계획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이후, 1개월 25일 뒤인 11월 1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이어 3개월 20일 뒤인 2020년 2월 20일에 기재부 승인을 획득하였음

- (집중협의 진입 실패) 2020년 1월 10일 6팀 25명 규모의 올림픽추진과를 신설하여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체계를 본격화하였으며, 같은 달 범정부 올림픽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차원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1월 30일 IOC 미래유치위원회로부터 지속협의 절차 개시를 통보받으며 유치경쟁에 진입하였으나, 2021년 2월 25일 브리즈번이 우선협상도시로 단일 선정되었음
- (브리즈번 집중협의 승격 이유)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브리즈번의 우선협상도시 승격 사유는 「올림픽 어젠다 2020」과의 부합성, 높은 기존시설 활용도, 우수한 기후여건, 도시 장기개발계획과의 높은 정합성, 압도적인 국내지지 기반 확보 등으로 분석됨
- (브리즈번 최종 선정) 3월 4일 브리즈번 우선협상도시 선정에 대한 유감표명 서한, 남북 공동개최 유치제안서 및 시장 친서를 IOC에 제출하고, 6월 1일 미래유치위원회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7월 21일 IOC 총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브리즈번이 최종 결정되었음
- (단독 후보로 과반수 득표)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단독 후보도시로 나선 브리즈번이 찬성 72표, 반대 5표, 무효 3표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음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주요 추진경과〉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유치 실패 원인)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유치 실패 원인으로 남북 공동유치라는 불확실성이 약점으로 작용하였고, IOC의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절차 변경에 대한 대응 부족, 추진체계 분산에 따른 일관된 올림픽 유치 활동 제약 등이 유치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 (선정절차 전환 대응 미흡) 특히 경쟁입찰에서 초대(대화) 방식으로 전환된 개최도시 선정절차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는데, 선정과정에서 미래유치위원회의 내부 심사 비중 확대와 IOC의 내부 의사결정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IOC 의사결정 조직과의 네트워킹 등 스포츠 외교력의 한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유치위원회 구성 필요성) 당시 올림픽유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비상설 유치추진체인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대응함에 따라 추진체계가 분산되고 일관된 유치 활동에 제약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36년 하계올림픽은 유치위원회의 조기 구성을 통해 유치 동력의 분산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 조기 승인 필요성) IOC가 개최도시 선정절차의 개편과 함께 전환단계의 도입을 예고함에 따라, 기존 절차 대비 정부 재정보증 입증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2032년 하계올림픽 추진 사례와 같이 정부의 조기 승인 확보가 필수적임
- (전환단계 진입 가능성 우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경쟁력지수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상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경우 전환단계 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지자체 차원 유치역량 강화 필요)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최종 승인을 위해 지속 가능성 기반의 올림픽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올림픽 유치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분산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운영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IV. 올림픽 유치 가능성 전략적 제고 방안

넷플러스(Net Plus) 올림픽 브랜딩 전략

- **(환경, 올림픽 정신의 3대 축)**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악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오염을 유발한 사례로 평가됨에 따라, IOC는 1993년 환경을 스포츠, 문화와 함께 올림픽 정신 3대 축으로 포함하고, 유치후보도시에 환경보호 계획 제시를 의무화하였음
- **(지속가능성 전략의 중요성)** IOC는 지속협의 단계에서부터 유치희망도시의 지속가능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집중협의 단계에서는 유치후보도시에 제시되는 질의서의 6개 분야 중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어, 지속가능성이 개최도시 선정 전반에서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 캐치프레이즈 Net+)** 시드니의 '녹색 올림픽', 런던의 '지속가능한 올림픽', 도쿄의 '재생과 순환의 올림픽', 파리의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과 같이 환경가치가 진화해 온 흐름을 고려할 때, '넷제로(Net Zero)'를 넘어서는 '넷플러스'를 핵심 가치로 설정한 '넷플러스 올림픽'으로의 브랜딩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함
 - (넷 포지티브 전략) 넷플러스는 전략적 명칭으로서,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 환경, 경제 전반에 긍정적 순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넷 포지티브(Net Positive)의 개념에 기반한 경영전략과(Winston et al., 2023) 유사한 개념임
 - (2032 브리즈번 지속가능성 전략)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은 대회 수송체계의 전면적인 탈탄소화를 목표로, 공식 수송 차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친환경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관중 이동의 90%를 전기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저탄소·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수송체계를 구현할 계획임

〈역대 올림픽 지속가능성 전략〉



- **(유치위원회 ISO 20121 인증 추진)** 브리즈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인 ISO 20121 인증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최초의 조직위원회로, 전주 올림픽은 한발 더 나아가 유치위원회 단계부터 ISO 20121 인증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회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함
- **(AI 기반 넷플러스 추진)** 올림픽 대회시설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실시간 분석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외부 온도와 실내 수용인원 변화에 연동된 냉방시스템 자동 제어를 구현하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적의 에너지 분배를 자동화하는 등 탄소배출의 추적, 측정 및 통제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함

도시 장기발전계획의 정합성 기반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 구현 전략

- **(도시계획과 올림픽 유치 간의 정합성)** IOC는 개최도시 선정 시 올림픽 유치계획과 도시의 장기발전계획 간의 정합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기에, 스포츠를 도시 발전의 핵심축으로 설정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재정립하여 스포츠 기반 도시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인도 아마다바드의 정합성) 전주기적 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프로그램 '켈로 인디아(Khelo India)', 2047년 세계 강대국이 되겠다는 '빅사이트 바라트(Viksit Bharat) 2047' 비전과 아마다바드에 조성될 대규모 스포츠 복합 인프라인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스포츠 엔클레이브'를 내세워 올림픽 유치와 아마다바드의 도시 발전계획 간의 정합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카타르 도하의 정합성) 국가를 세계적인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각화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인 '카타르 비전 2030'과 올림픽 유치 간의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음
-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 구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후보도시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도시 장기발전계획과 올림픽 유치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글로벌 유치경쟁 구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행력 기반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로,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장기발전계획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① 국제스포츠이벤트 경쟁력 강화)** 첫째, 이벤트 운영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이벤트 기획, 운영, 평가 전반에 걸친 실행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와 중형 이벤트를 연계한 단계적 이벤트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② 국제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 확대)** 둘째, 국제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국제스포츠기구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스포츠 포럼, 총회, 주요 회의 유치를 통한 외교적 영향력을 높여야 함
- **(③ 글로벌 스포츠 인프라 구축)** 셋째, 기존 경기시설의 리모델링 및 다변화, 친환경·저비용·고효율의 경기시설 확충,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의 필수적인 숙박, 교통 등 지원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접근성, 수용성,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 전략이 요구됨
- **(④ 글로벌 스포츠산업 생태계 조성)** 넷째, 스포츠 관련 기업 유치 및 민간투자 활성화와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글로벌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구축 사례〉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사진	주요 평가 기준
스페인 카탈루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ESCAT는 스포츠와 관련된 기업 및 연구센터를 집적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장려 • 소비재, 스포츠시설, 스포츠이벤트 등 전체 스포츠 시장을 위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50개 이상의 기업연구센터로 구성
미국 샌디에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팀 스포츠와 개인 스포츠, 익스트림스포츠, 피트니스 등과 관련된 제품, 디자인, 제조, 판매, 물류, 코칭 서비스 등을 포함 • 약 1,200개 사업체에서 2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2억 4천만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개에 이르는 국제 및 국가 스포츠 기관이 모여 있는 곳으로,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수도'로 불리는 곳 • 미국 올림픽 트레이닝센터, 스포츠경영 교육을 선도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대학, 스포츠 관련 제품개발 기업 및 제조업 집적화로 시너지 극대화
스위스 로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C를 중심으로 스포츠 관련 국제연맹(IFs), 스포츠 우산기구,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이 합세하여 클러스터 형성 • 비즈니스협회 설립, 투자발전기금 설립, 기업창업 지원,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스포츠 산업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주 : INDESCAT는 산업(Industry), 스포츠(Sports), 카탈루냐(Catalonia)의 합성어
출처 : 한국스포츠과학원(2018)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플랫폼형 올림픽 모델 구축 전략

- **(차세대 올림픽 모델 제시)** 다지역으로 분산된 도시와 시설을 디지털, AI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경험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올림픽 모델을 구축하고, 전북 전주는 올림픽 기획, 운영, 조정, 데이터, 유산 등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올림픽을 ‘하나의 축제’로 실현하는 핵심 거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네트워크형 올림픽 모델)** 단일도시 집중형 올림픽에서 벗어난 다수의 도시,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올림픽 모델로서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된 모델을 의미함
 - (등장 배경) 기존 올림픽 개최 시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과 이로 인한 올림픽 유치희망도시의 감소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IOC는 「올림픽 어젠다 2020: 새로운 표준」 및 「올림픽 어젠다 2020+5」를 통해 복수의 도시 및 국가 간 공동 개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네트워크형 올림픽 구조〉

구조	주요 기능
공간 네트워크	• 여러 도시 간 공동 개최하는 광역 클러스터
기능 네트워크	• 개최회식, 지역 환경 특화 종목, 미디어, 숙박 등 시설 중심으로 기능 분산
디지털 네트워크	• AI 운영 시스템, 통합 플랫폼 등으로 물리적 거리를 디지털로 연결
거버넌스 네트워크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국제기구의 협력형 운영체계

- **(네트워크형 올림픽의 한계)**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다지역 분산형 올림픽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속가능성과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네트워크형 올림픽의 초기 모델을 선보였으나, 운영 복잡성, 관중 경험 저하, 도시 브랜드 집중도 하락, 이동 시간 증가, 종목 간 교류 약화라는 한계점을 도출하였음
- **(플랫폼형 올림픽 모델 제안)** 이러한 네트워크형 올림픽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체계와 관중 및 미디어 경험의 혁신을 구현하는 한 단계 진화한 플랫폼형 올림픽 모델을 제안함
 - (플랫폼형 올림픽 모델 정의) 플랫폼형 올림픽은 도시 중심의 개최 구조를 넘어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운영 모델로서 경기장, 교통, 숙박, 미디어, 관중 경험 등 모든 요소가 실시간 데이터와 AI 기반 플랫폼에 의해 통합되고 관리되는 디지털-물리 융합형 올림픽을 의미함
 - (플랫폼형 올림픽 모델 특징) 디지털, 물리적 인프라,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합한 올림픽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된 도시들을 하나의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올림픽 운영과 관중 및 미디어 경험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차세대 올림픽 모델이라 할 수 있음

〈플랫폼형 올림픽 구조〉

계층	주요 기능
물리적 인프라	• 경기장, 올림픽촌, 교통 인프라, 숙박 및 도시 인프라, 팬 존 등 실제 올림픽이 수행되는 물리적 이벤트 실행 공간으로서 이동, 경기, 체류 등의 활동 발생
AI·디지털	• IoT 센서,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AI 분석 시스템, 예측 모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운영과 의사결정 지원을 수행
관중·미디어 경험	• 모바일 올림픽 앱, AR·VR 관람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최적화, 개인 맞춤형 경기 추천, 글로벌 팬 인터랙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관중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팬 경험 극대화
거버넌스	• IOC, 조직위원회, 중앙통제센터, 지방정부 및 민간 테크기업 등이 참여하여 회의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실시간 운영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다중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
핵심 운영 시스템	• 데이터 통합 허브 기반의 도시 간 자원 자동 배분, 경기 일정 및 운영 최적화, 교통·안전·환경 통합 제어, 글로벌 팬 트래픽 관리,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운영체계

참고 문헌

- 정해식, 정홍원, 구혜란, 김성근, 김성아 & 우선희.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009). 2018 국내후보도시 선정 관련 KOC 상임위원회·위원총회.
- AP News. (2025.10.26.). Munich's mayor celebrates victory in a vote on bidding for the Olympics.
- Connor, R. (2025.04.11.). Germany's Olympic bid wins strong public support. Deutsche Welle.
- Harding, J. (2025.07.29.). 2036 Olympics: The possible impact of Qatar's bid. Deutsche Welle.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21a). Feasibility assessment: Olympic Games Brisbane.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21b). Report of the Future Host Commission for the Games of the Olympiad to the IOC Executive Board: Targeted dialogue Brisbane 2032.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21c). Future host questionnaire.
- Kageyama, Y. (2024.10.02.). Japanese sponsors Toyota, Bridgestone and Panasonic end Olympic contracts.
- Livingstone, R. (2024.09.23.). With focus shifted to 2030 Youth Olympics bid, India's run at 2036 Summer Games begins to fade. GamesBids.com.
- Livingstone, R. (2025.07.04.). IOC cautions India's 2036 Olympic bid identifying these significant fundamental concerns. GamesBids.com.
- May, S. (2026.05.05.). Olympic selection set for reform ahead of 2036. Inside The Games.
- McGowan, E. (2025.04.01.). India centres Olympic plan in Gujarat. Inside The Games.
- Schulte, V. (2026.04.20.). Reaktionen auf das Olympia-Ja an Rhein und Ruhr. Sportschau.
- South China Morning Post. (2025.11.25.). Majority of Berlin residents against bid to host Olympic Games, survey finds.
- Vasavda, M. (2025.07.04.). As India pitches for Olympics, IOC airs concerns on doping, governance, sporting performance. The Indian Express.
- Winston, A., Polman, P., & Seabright, J. (2023). Middle management is the key to sustaina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101(6), 102-111.

Vol.343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